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KC코트렐 고재영 사장님

KC greenholdings 가족 여러분들께 신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KC Network의 새로운 가족으로 전입한 항상 적극적, 긍정적, 창의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일명 “맥가이버” 고재영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대학교에서는 기계전공을 했고 석사는 미국에서 환경공학, 박사는 서울산업대에서 에너지, 폐기물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기술고등고시를 통해 80년부터 환경부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6년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정책, 국제협력분야에서 두루 근무하고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일하였습니다

저는 KC 가족 여러분들 만큼 깊은 지식은 갖고 있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폭 넓은 경험과 대인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KC 그룹이 한층 더 발전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일해온 사람을 믿고 KC 그룹의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여간 내리기 쉽지 않은 결단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라기 보다는 여러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하지 않고 선수 누구도 정해진 게임의 룰을 어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것이 주 임무이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만들기 보다는 남들 즉 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일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고 재단 하는 것이 몸에 체질화 되어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앞에서 말씀 드린 타입의 정반대 기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리며 지난 30년 공직 생활 동안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하거나 남이 하고 있거나 해 놓은 일들을 평가 재단하면서 살아 오지 않고 거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입안 시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KC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지낼 날들이 새털같이 많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제 소개나 앞으로의 꿈, 포부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자나 깨나 지니고 다니는 수첩에 깨알같이 적고 다니면서 가끔 한번씩 스스로 읽어보고 다짐하는 명심사항 몇 가지만 소개 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룹을 세계 최대의 환경 및 관련분야 최대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밖에서 굴러온 바위(?) 혼자서 잘 굴러가나 소 닭 보듯이 하지 마시고 어여뻐 봐주시고 가끔은 격려의 말씀내지 자문 요청해주시면 존재의 의미가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KC 가족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성실하고 나 또한 긍정적이고 항상 미래를 개척해나간다.
-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물품 식품들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 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라.
- 자다가도 걷다가도 좋은 생각 해야 할 일 떠오르면 즉시 기록 또는 시행한다.
- 해야 할 일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다.
- 성공한 사람 앞선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묻고 도움을 청한다.
- 도울 수 있을 때 최대한 돕고 배울 수 있을 때 최대한 배워라. 인생은 공수레 공수거다.
- 끌고 가는 쪽, 긍정적인 쪽, 큰 쪽, 강한 쪽에서 생각하고 일해라. 불경기에도 전쟁 중에도 반드시 승자가 있다. 위기가 크면 기회도 크다.
- 들물을 만났을 때 최대한 배질해라 언제든 날물이 닥칠 수 있다

* 개인적으로 문의하거나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휴대전화 또는 개인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cp: 010-8929-0853

email: jyoungko@ymail.com

KC코트렐 고재영 사장님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코트렐] KOTRA보증브랜드 인증사업 선정

지난 5월4일 KOTRA(한국무역협회) 보증브랜드 인증사업 협약식에 KC코트렐 최영희 전무님이 참석하여 협약서를 수여받았습니다.

“KOTRA보증브랜드(KOTRA SEAL OF EXCELLENCE)” 사업이란 품질, 기술력이 우수하나 해외에서 인지도가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선정, KOTRA보증브랜드인 ‘KOTRA Seal of Excellence’ 로고를 선정업체의 마케팅 자료, 제품(BOX)에 부착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Excellence award입니다.

이 사업은 재무건전성, 수출역량, 제품경쟁력,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선정기업/제품에 대한 해외바이어들의 선호도와 신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출 증대는 물론 구매결정 속도 제고, 수출상품의 제값 받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C코트렐은 Electrostatic Precipitator(전기집진기)설비로 인증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회사 홍보물, 명함, 레터, 인보이스 등에 본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해외마케팅, 금융 등의 부문까지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협약서와 인증 마크입니다.



▶ KOTRA보증브랜드 인증서



▶ KOTRA보증브랜드 마크

[KC네트워크] 임원워크샵 개최

지난 4월9일 무주리조트에서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KC환경서비스, KC환경개발, 조드KC, KC삼양정수, 안성유리, 클레스트라, 베올리아ES&KC에코싸이클,, NWL, KC한미산업, KC인발 등 KC네트워크사 많은 임원들을 모시고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서 포스코 인재혁신실 이원중 씨의 “Visual Plan” 강의와 함께 신규회사인 KC그린홀딩스, KC인발의 회사소개 그리고 KC삼양정수의 “C.H.E.C.K2010” 이라는 제목의 회사의 비전 소개 시간도 있었습니다.

KC네트워크 임원워크샵은 지난 2008년에 이어 2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코트렐] CC20 프로젝트 종결

2010년 1월 7일 CC20 Project가 Kick off 한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주가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아진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실행을 통하여 경쟁력이 이루어지고 우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배우신 것들을 우리 KC코트렐에 어떻게 심어서 앞으로 KC코트렐의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CC20를 위한 힘찬 걸음을 기대합니다.

KC그린홀딩스 기획팀 장석윤 선임
(seokyoung@kcgreenholdings.com)



변하자! 해내자! ‘CC20’ 파이팅! 짹 짹 짹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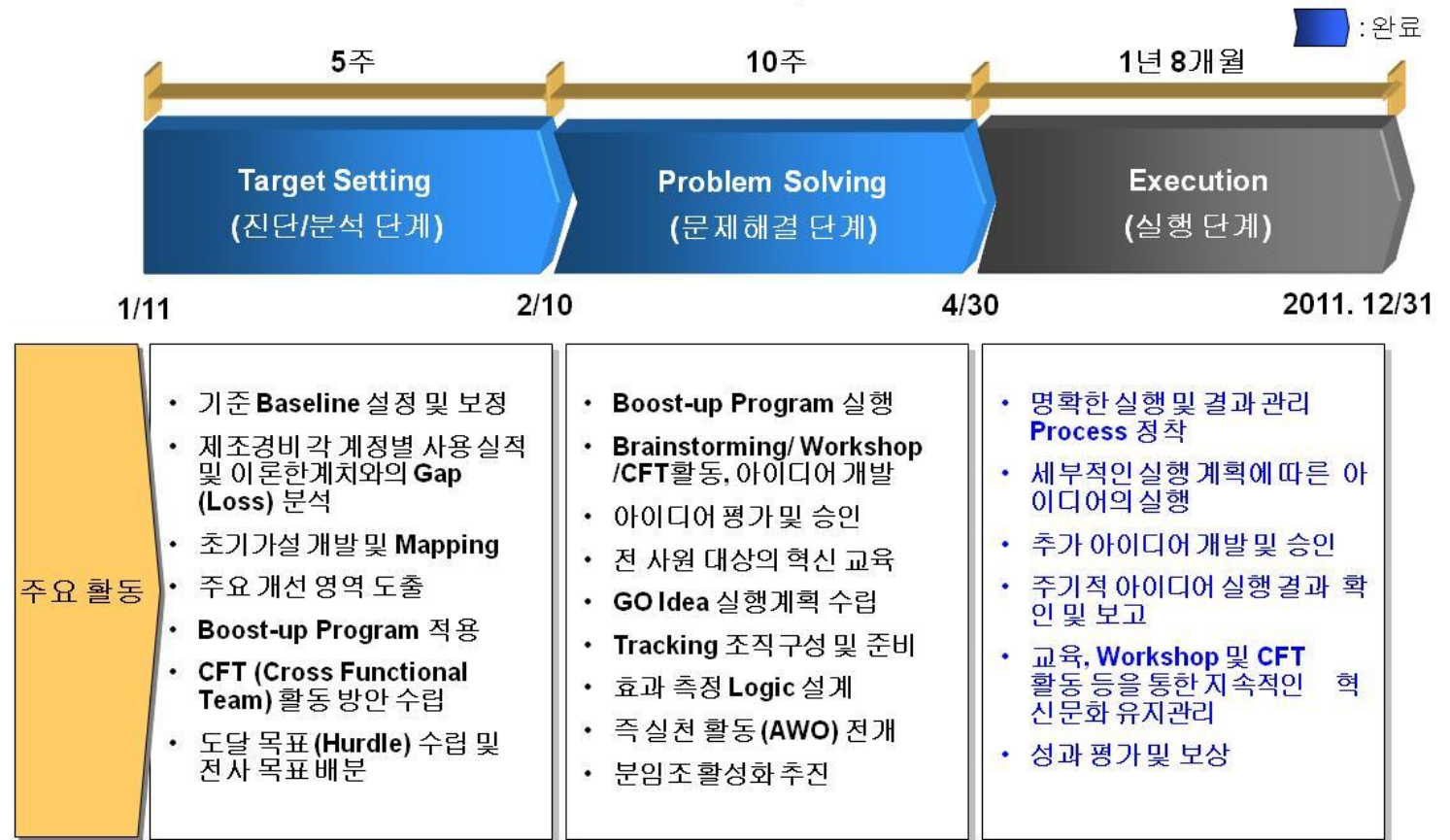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CC20' 프로젝트 진행현황

5주간의 진단을 통한 **Target setting**과 10주간의 **Idea** 개발을 통한 **Problem solving** 단계를 마쳤으며, 향후 승인된 **Idea** 실행과 문제해결을 위한 **Activity**를 추진 예정입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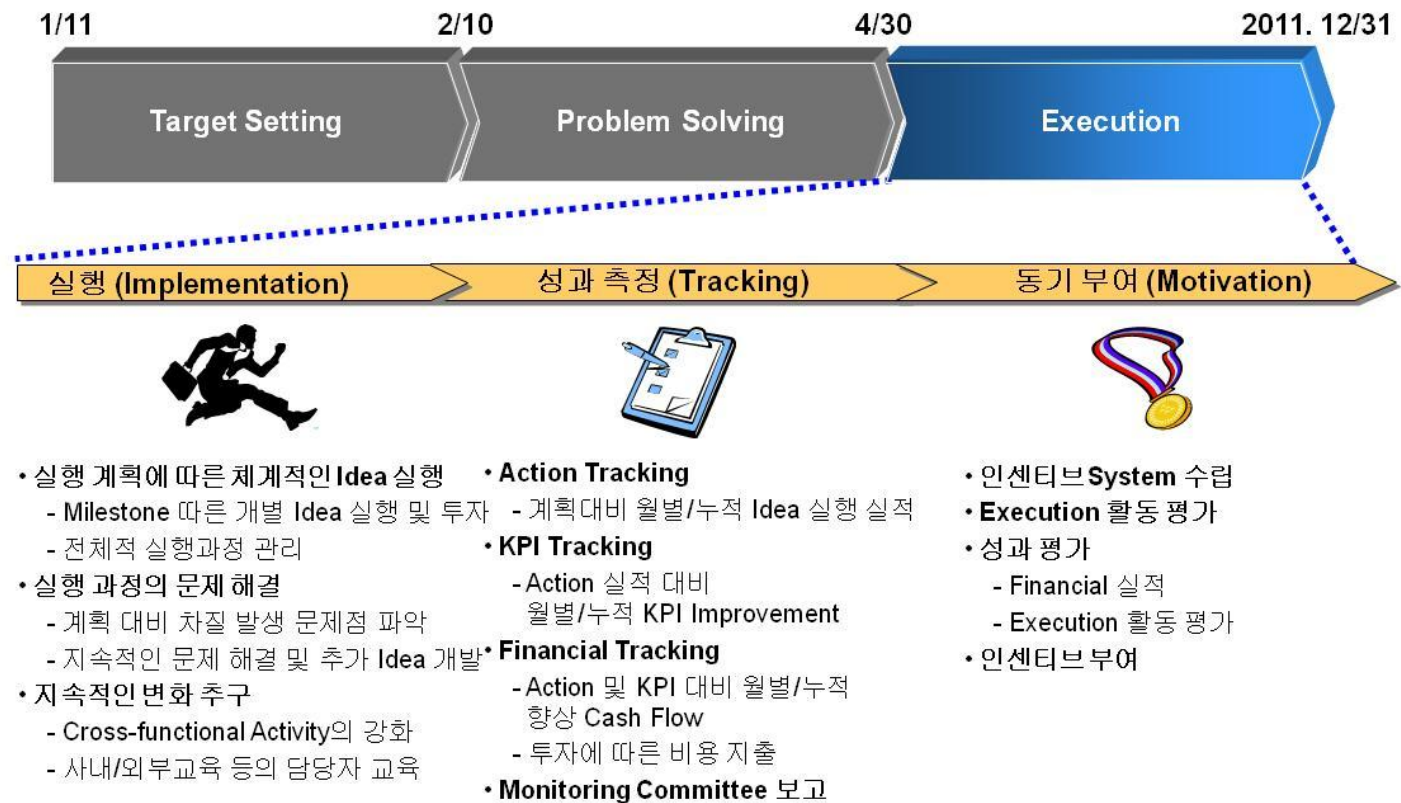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실행 단계 (Execution Phase) 추진 과정

Execution Phase에서는 성과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각 Idea를 실행하고 이를 Tracking 하며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한미산업] 폐수수탁처리업 시설 신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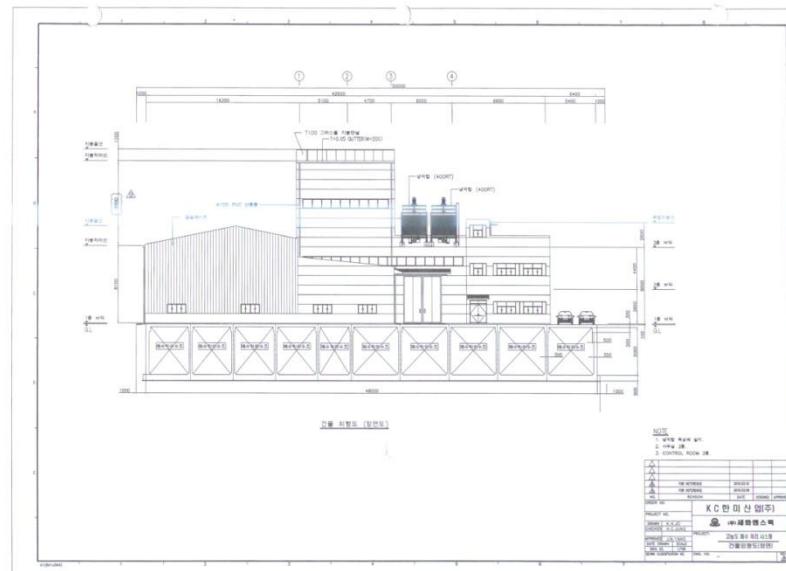
KC한미산업은 현재 가동 중인 폐수수탁처리시설을 보다 나은 최신의 공법을 도입하여 증설 설치함으로써 2011년 4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재의 폐수 수탁 매출의 4배에 가까운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KC한미산업(주)의 제2의 성장동력 발판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에는 주 매출이 소각산업인 매출 구도이지만 시설 준공 후에는 폐수 처리 매출의 증가로 인해 안정적 매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폐수처리능력은 200톤/일이며, 시설부지는 현 소각장 옆 신규부지입니다.

KC한미산업 관리팀 안종길 부장(jkahn@kc-enviro.com)



<신규 폐수공장외형도>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한미산업] 상반기 단합 산행대회

지난 4월24일 토요일, KC한미산업 가족이 애사심 강화와 직원 간의 친목 및 소통을 위하여 한마음 극기 훈련 겸 산행을 하였습니다.

등산 코스는 경남 진해 소재 장복산 시루봉(654M) 으로 왕복 14KM의 산행이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는 관계로 모든 직원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이강욱 대표이사님과 직원 일행은 아침 8시 30분에 집합하여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듣고 4시간을 목표로 하여 출발했습니다.

이번 봄에는 정상에 꽃이 늦게 피어 산능선에는 벚꽃과 야생화가 피어 있었고 장복산은 창원과 진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산이라 진해의 군항 도시와 창원의 산업.행정 도시의 장관을 볼 수 있어 직원들이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루봉은 산능선에 2층 높이의 시루떡 모양이 우뚝 솟아 있어 장관이며(사진참조) 옛날에는 해병대 훈련장이라 지금도 "해병"이라고 흰돌로 표시 되어 있는

봉우리입니다. 준비한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화이팅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전원 낙오자 없이 정상에 도착하고 하산 하였습니다. 점심은 산 밑에 있는 오리 고기집에서 맛있게 먹고 "발전하고 변하는 KC한미를 위하여"라고 건배하고 이강욱대표이사님 인사말씀을 끝으로 오후 3시 산행을 모두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KC한미산업 관리팀 안종길 부장(jkahn@kc-enviro.com)



▷장복산 시루봉에서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베올리아이에스앤 케이씨에코사이클] 설비 증설 완료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그린 에너지를 창출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정책목표달성에 이바지 할 뿐 아니라 급격히 늘어가는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여주군 소재 베올리아이에스앤케이씨에코사이클에서 약 2배 규모로 설비 증설을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4월 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완전한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 성형기 1대의 추가공사로 설비의 용량을 2배로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폐기물 관련 경기의 침체로 인한 폐기물 성상악화로 인하여 기존의 파쇄기로는 파쇄능력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여, 성능이 탁월한 독일의 파쇄기를 적극 검토 적용 하였습니다.

성형기는 기존의 것은 고가로 미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이번에는 국내 제작가능 회사를 발굴하여 설치함으로써 조달 경비를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유지 보수업무에 대한 편리함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비 증설의 특징은 운전인원의 증가 없이 설비의 능력을 2배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설비의 증설도 없었으며 향후 성형기 1대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설비의 증설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설비의 운전효율을 극대화하여 회사의 경영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사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RPF의 공급계약내용

제일섬유 : 500톤/월

SK에너지 : 1000톤/월(2010년 7월초 공급예정)

정수기전 : 2000톤/월(2010년 11월초 공급예정)

한일시멘트 : 1000톤/월

베올리아이에스앤 케이씨에코사이클 관리팀 서정철 부장(jcsuh@veskc.com)

(다음장에 이어집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설비의 증설 공정도

(증설 전)



(증설 후)



● 설비 증설 사진



증설 파쇄기(350HP)



증설 성형기(300HP)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꿈은 이루어진다 -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

현대제철이 4월 8일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식'을 갖고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고로제철소이자, 세계 최초로 제철원료에서 제품생산까지 친환경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녹색제철소의 본격 가동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1953년 국내 최초의 철강업체로 출범한지 57년, 1973년 국내 첫 고로가 싯물을 쏟아낸 지 37년만에 한국 철강사에 민간기업 최초의 고로제철소 준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한국철강 신문 (4/12, 제1531호)

제품 판매가 인상 원료가 급등세 반영 ... 인상폭 최소화

5월 3일 계약분부터

포스코가 5월 3일 계약분부터 제품가격을 9.8~25% 인상한다. 열연과 선재는 톤당 17만원씩 인상한 85만원과 89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자동차와 가전용 소재인 냉연코일(CR)과 아연도금강판(CG)은 톤당 18만원씩 인상해 각각 96만 5000원과 106만 50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후판 제품은 수주 급감과 세계적인 불황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조선업계의 현 상황을 고려해 톤당 8만원만 인상한 90만원으로 결정,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톤당 15만원 인상, 70만원으로 조정한 주물선 제품의 경우에는 영세 고객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소재 원가를 최종제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상가격을 1개월 늦춘 6월 3일 계약분부터 적용기로 했다. 포스코는 최근 주요 원료 공급사들이 철광석 및 석탄 등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90~100%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등 톤당 19만~21만원의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국제 철강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료가격의 경우 협상완료 시점과 상관없이 4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지만 철강제품 가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시기를 늦추면 인상폭이 급격히 커져 고객사들의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또한 열연코일·선재 등 수입제품의 2분기 국내 가격이 1분기 대비 150달러 가까이 인상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및 가전산업 등에서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포스코 제품만을 구매하려고 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수급 왜곡은 국내 철강수요 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포스코의 철강재 가격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스코는 고객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격인상 요인들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제품가격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전사적으로 QSS·기술개발 등 혁신활동을 추진해 줄어드는 수익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원료의 구매계약 주기가 지난 40년간 유지해 왔던 연간 단위에서 원료 공급사들이 요구하는 분기 단위로 바뀌게 되면 제품 판매가격 또한 분기별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 신문(4/29, 제816호)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BRICs 안정적 성장이 회복 견인

2009년 30% 이상 수요가 급감했던 구미 선진국은 지난해 말 재고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적극적 재고확보 수요에 힘입어 미국 26.5%, EU 13.7% 증가 등 고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2~3년간의 침체 영향으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요 규모는 2007년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강력한 부양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24.8%의 높은 수요 증가율을 기록했던 중국은 올해에도 경제 고성장 기조 유지로 6.7%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세계 전체 수요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더불어 지난해 7.7% 성장을 기록했던 인도는 올해에도 13.9%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브라질·러시아 등도 10~20%의 수요 회복이 예상돼 브릭스(BRICs) 전체 수요는 8%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브릭스의 수요 비중도 세계의 절반 이상(56%)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수요도 고성장 기조 회복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세가 한풀 꺾였던 신흥국들도 올해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고성장 기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008년 수준(0.8%)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알제리·남아공·사우디·UAE 등의 수요 회복으로 9.5%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터키를 비롯한 신흥 유럽국들도 13.5% 증가하고 동남아도 13% 증가하는 등 신흥국들의 수요 회복 기조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 지속 기대

한편 내년 세계 철강수요는 올해 고성장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하겠으나 5.3%의 견조한 증가세로 13억톤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EU 등 구미 선진국은 7%대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도 8~9%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의 고성장에 대한 조정국면과 경기과열 억제에 위한 정책 등이 예상돼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규모는 6억톤 수준까지 확대돼 세계 철강시장에서 여전히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 포스코 신문(4/29, 제8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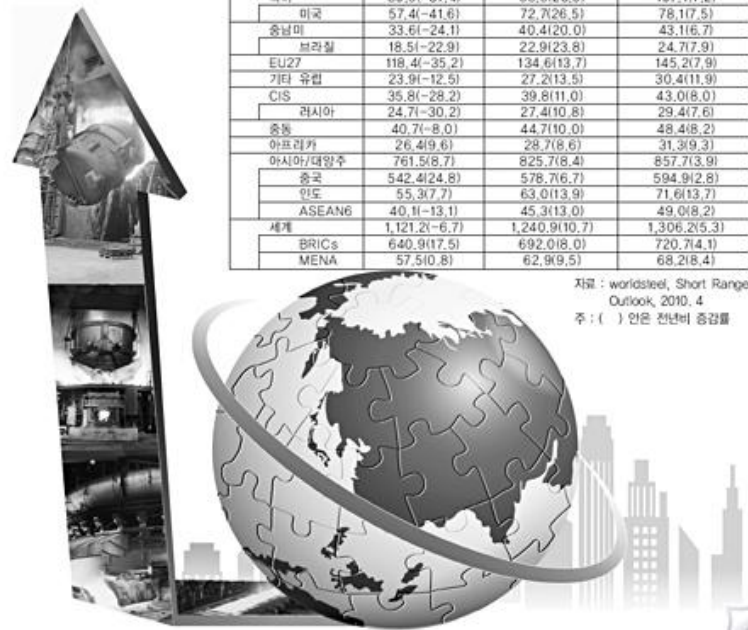
올해 세계 철강수요 전망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최근 국제철강협회가 발표한 단기전망(Short Range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세계 철강수요는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12억 4000만톤으로 과거 최고치인 2007년의 12억 200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5%, 2009년 6.7% 감소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세계 철강수요가 본격적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역	2009	2010	2011
북미	80.9(-37.4)	99.9(23.5)	107.1(7.2)
미국	57.4(-41.6)	72.7(26.5)	78.1(7.5)
중남미	33.6(-24.1)	40.4(20.0)	43.1(6.7)
브라질	18.5(-22.9)	22.9(23.8)	24.7(7.9)
EU27	118.4(-35.2)	134.6(13.7)	145.2(7.9)
기타 유럽	23.9(-12.5)	27.2(13.5)	30.4(11.9)
CIS	35.8(-28.2)	39.8(11.0)	43.0(8.0)
러시아	24.7(-30.2)	27.4(10.8)	29.4(7.6)
중국	40.7(-8.0)	44.7(10.0)	48.4(8.2)
아프리카	26.4(9.6)	28.7(8.6)	31.3(9.3)
아시아/대양주	761.5(8.7)	825.7(8.4)	857.7(3.9)
중국	542.4(24.8)	578.7(6.7)	594.9(2.8)
인도	55.3(7.7)	63.0(13.9)	71.6(13.7)
ASEAN6	40.1(-13.1)	45.3(13.0)	49.0(8.2)
세계	1,121.2(-6.7)	1,240.9(10.7)	1,306.2(5.3)
BRICs	640.9(17.5)	692.0(8.0)	720.7(4.1)
MENA	57.5(10.8)	62.9(9.5)	68.2(8.4)

자료 :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2010. 4
주: () 안은 전년 증감률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에쓰오일, 석유화학 부문 중국 수요 힘입어 매출 급증



에쓰오일은 지난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4% 줄어든 4조3558억원에 그쳤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57억원, 874억원 적자에서 451억원, 1041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계획을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며 "정유 부문은 휘발유와 경유 등 경질유를 중심으로 정제마진이 반등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석유화학 부문도 중국 등에서 수요가 크게 늘며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유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난 3조669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해 석유화학 부문은 40.8% 급증한 3889억원, 윤활기유 부문은 19.5% 늘어난 2975억원을 나타냈다. 정기보수가 진행된 탓에 경쟁업체에 비해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실망스러운 성적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웅주 대우증권 연구원은 "정유 부문은 173억원 적자를 나타냈지만 정기보수에 따른 판매물량 감소 등 관련 손실이 45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흑자전환한 셈"이라고 말했다.

2분기부터 업계 최고의 고도화율을 무기로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은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유가격 강세가 3월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며 "윤활기유 부문도 계절적 성수기가 오며 정유 부문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에쓰오일 측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실적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 산업 및 수송용 연료 수요 증가가 지속되며 수요 증가분이 신규 공급 증가분을 웃돌 것"이라며 "석유화학 부문도 수요 증가 및 아시아 지역 정기보수의 영향으로 상황이 호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측상단에 계속)

이 관계자는 "윤활기유 부문도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탄탄히 이어지는 가운데 미주 지역 수요도 회복되며 마진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77% 증가한 1699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증권사 이용주 연구원은 "정유 부문의 경우 6월 말에 추가적인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지만, 규모가 작아 1분기와 달리 큰 영향은 없다"며 "매출도 7% 이상 늘어나 4조6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0-05-06 한국경제신문 조재희 기자)

울산신항, 동북아 오일허브 청사진 나왔다



울산신항<조감도>을 동북아시아의 오일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3일 국토해양부는 울산신항 기본계획변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개발면적과 사업비를 대폭 늘리고 당초 2011년으로 계획했던 준공시기를 2015년까지 연장해 울산신항을 동북아시아 오일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오일허브란 원유와 석유제품의 저장과 장외, 선물시장 등의 금융거래 기능을 통합한 거래 중심지를 의미한다.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초 198만4000㎡였던 항만부지가 273만9000㎡로 75만5000㎡가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면적 가운데 940m에는 4선식 규모의 안벽이 설치되고, 604m의 호안이 만들어진 등 29만5000㎡가 오일허브 개발에 사용된다.

또 오일허브 구축지역이 들어설 북항지역의 항내 선박이 파도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m 길이의 북방파제가 추가로 조성기로 했다.

울산신항 개발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규모를 당초 1조9891억원에서 3조505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울산신항이 완공되면 연간 2376만톤의 화물과 1161만6000톤의 오일 하역능력을 갖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0-05-03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환율시장

5월 원달러 환율 1,080~1,130원선 전망

-다음 주 삼성생명 공모 및 위안화 절상에 의한 원화강세 절정 이를 듯.
단, 당국개입의지, 그리스 재정적자, 초계함 침몰의 북한연계가능성 등이 변수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 전문가들은 금일의 원달러 환율 전망을 1,080~1,130원으로 보았다.

미쓰비시도쿄 UFJ의 정인우 팀장은 5월 변동폭을 1,090~1,125원으로 전망했다. "5월초에 삼성생명 상장이 관건이다. 당국이 관련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느냐 후퇴하면서 받느냐에 따라 향후 달러화 레벨이 결정될 수 있다. 1,100원을 지키면서 받으면 당국에 대한 경제감이 더 커지며 달러화 하락이 제한될 것이다. 삼성생명 상장 이후로도 수급상 달러 공급이 계속 우위에 있겠지만 당국의 개입 패턴도 변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1,100원 중심으로 공방을 이어갈 것이다. 당국의 방어 의지가 강하면 통플레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반면 스무딩 위주로 나서면 솟을 유지하는 게 맞다. 중기적으로는 달러화 하락 추세가 강하다. 상승 재료인 유럽발 악재는 충분히 돌출됐고, 오히려 악재 후 주식 시장이 더욱 견조한 흐름세를 보일 정도로 영향력이 소진됐다. 당국의 개입으로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하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SC제일은행 박종덕 부장은 5월 환율변동폭을 1,080~1,120원으로 보았다.

"5월 중 위안화 절상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달러화가 1,100원선을 하회할 수 있다. 위안화 절상 이벤트 이전에 달러화가 1,100선을 테스트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100원선 테스트가 이미 몇 번 실패로 돌아갔다. 당국의 개입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 문제도 여전히 여전하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인 데서 알 수 있듯 아직 파괴력도 크다. 때문에 수급 상 달러 공급이 우위를 보여도 위안화 절상 이전에 달러화 1,000원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수출도 꾸준히 개선될 것이다. WGBI, MSCI 편입 등 긍정적인 이벤트들도 대개 중이다. 남유럽 위기, 금융규제 등 악재들에 의해 중간 중간 조정을 받으면서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은행 정영갑 부부장은 5월 환율변동폭을 1,080~1,130원으로 전망했다.

"5월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외국인도 국내 주식을 꾸준히 매수할 것으로 보여 달러 공급 우위를 이어갈 것이다. 현재 코스피지수 레벨(1,700대)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당국의 개입도 이어지며 두 요소가 공방을 벌일 것이다. 당국이 5월 초에 1,100원선을 내어주진 않겠지만 중반 이후로 가면 레인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남유럽 국가 위기 외에도 금융규제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달러화 중요한 달러화 반등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조적 공급우위로 달러화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나 남유럽 위기와 같은 돌발 변수로 일시적 조정을 받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류현정 부장은 5월 환율변동폭을 1,090~1,130원으로 보았다. "월초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환시 유입 물량이 최대 18억달러 수준인데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다. 당국의 역량을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삼성생명 상장은 심리적인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커 월초에 달러화가 1,100원 밑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5월 중에도 달러화가 1,100원대에 밑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내려가더라도 일시적일 것으로 현재 당국의 자세 등을 고려하면 1,100원대 밑에서 추가로 달러를 매도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상품을 포트폴리오 상 주요 투자대상으로 재배치하면서 외국인 주식, 채권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건설경기 부진 등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수지가 비교적 견고하고 성장률도 높게 나오면서 한국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수급 상으로 달러 공급 우위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달러화는 점진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초계함 침몰의 북한 연계 가능성을 달러화를 반등시킬 재료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남북 관계가 국지적 분쟁 상황으로까지 치달지 않는 이상 달러화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쑈여기서 잠깐쑈

[4월 환율정보의 신뢰성 파악]

4월 원/달러 환율은 최초 매매기준율 기준 1,132.5원에서 1,104원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뉴스레터 지난 8호에 예상했던 1,100~1,15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인홍국 통화의 강세기조로 원화는 절상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사기혐의와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초계함 침몰의 북한 연계 가능성 등의 대외 요소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 하단선을 지켜냈다. 유로화는 4월 한달동안 꾸준한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리스에 대한 EU,IMF 구제금융이 합의되더라도 남유럽지역으로 확대된 재정적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뉴스 2010.05.03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원자재

[열연] 열연 유통 “5월 초 시장 새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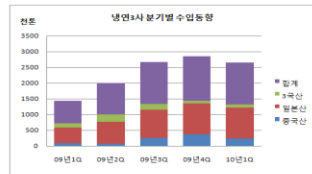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열연 SCC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기대 값과 실질 거래가격이 차이가 날 것인가? 그리고 가격 폭등기 벌어졌던 고객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경쟁사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 시장으로 전환됐다.

포스코 열연 SCC들은 3.0mm 기준 제품의 공급가격을 톤당 95만원에 제시해 둔 상태. 현대제철 SCC들 중 일부도 95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유통 업체 등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보인다. SCC들도 호가를 제시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박물재 등 일부 열연 제품의 공급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95만원 대 거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장담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산 열연코일의 호가는 95만원까지 치솟았지만 거래 성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90만원 전후 수준에서 일부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연 유통 시장 가격이 일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5월초 열연 SCC들이 본격 영업에 나서고 인상분이 투입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중론이다.

2010-04-27 스틸데일리 기사

[냉연] 냉연 3사 1분기 열연 수입 “두배 가까이 증가”



○ 스틸데일리 5월

냉연 3사 올해 1분기 열연 수입이 전년 동기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냉연 3사의 올해 1분기 열연 수입량은 132만여 톤으로 전년 동기비 85% 증가했다.

냉연사들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풀캐퍼 조업에 속속 들어가기 시작했던 지난해 3분기부터 대폭 열연수입을 늘렸다. 냉연3사의 열연수입은 지난해 1분기 71만여 톤, 2분기 99만여 톤에 불과하다가 3분기 133만여 톤, 4분기 142만여 톤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분기에도 132만여 톤으로 대량 수입추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냉연사들은 현재 적정수준 이상의 열연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연사들의 열연수입은 2분기에도 130만여 톤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풀캐퍼 조업이 지속된데다 국제 열연가격 강세가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냉연사들이 꾸준히 열연을 수입해왔기 때문이다.

2010-05-07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형강] 5월 철근, 형강 가격 인상 확실 “인상 폭은 미정”

봉형강 유통시장에 5월 철근 형강 등 봉형강 제품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철스크랩 가격 상승 폭에 비해 제품 가격 인상이 적어 제강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추가 가격 인상을 실시할 것이라 전망이다.

또한 제강사도 5월 봉형강 가격 추가 인상설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봉형강 제품가격 인상이 철스크랩 가격 상승 폭에 못 미쳤던 것은 4월과 5월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제강사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5월 봉형강 제품가격 인상은 확실히 되고 있으며, 봉형강 유통업계는 5월 철근 및 형강류 제품가격인 톤당 5~7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04-21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STS] 예측불허의 니켈價, 먹장구름 낀 STS업계



“도대체 얼마에 판매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공황상태예요. 사실상 굉장한 충격인거죠”

니켈가격이 2만 1천 달러대로 급락하자 스테인리스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최근 니켈가격은 소위 ‘그리스 바이러스’와 중국의 부동산 광열방비대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급락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중순까지 고공행진을 할 것처럼 보였던 니켈가격이 2주 사이에 톤당 5천 달러 정도 하락한 것.

니켈가격이 지난 4월 중순 톤당 2만 7천 달러 대를 돌파하는 등 올해 들어 니켈가격은 경기회복과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감, 펀드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 들어 니켈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급기야 지난 6일 2만 1천 달러 내로 급락했다. 이는 펀더멘털적 요인이 아닌 금융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등 유로 존 경제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니켈가격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니켈가격은 2만 1천~2만 3천 달러 내에서 조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만달러 대로 하락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0-05-07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KC코트렐에 붙고 있는 영어 학습의 봄!

회사는 Global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어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온라인 영어 강좌를 2010년부터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온라인 영어 학습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서 출장이 잦은 직원들에게 활용도가 높아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으로 인하여 회사,가정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규칙적으로 강의를 듣지는 못하지만 기초부터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교육의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출장이 많은 기술직구과 현장파견자들 규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직원들이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같습니다.

- 기술서비스팀 허순범 팀장 -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은 있지만 쉽게 하지 못했던 순간 회사에서 온라인 영어 학습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기쁘면서도 "영어공부는 힘들고 어려우거냐"라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온라인 학습에 등록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그 동안 10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너무 쉽게 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학습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향상됨을 느끼면서 업무에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 발전민수사업부 홍윤표 과장 -

항상 내 자신의 노력부족이겠지만, 잦은 출장업무 등으로 규칙적인 학원수강은 물론 회화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업무상 정말 필요로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온라인 영어 강좌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설정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서 맴도는 오늘의 영어맨이, 얼굴 철판 깔고 탈출하는 그 날까지 같이 해 보시죠?

- 제철사업부 오봉수PM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新지식인 개념 도입한 경영학자... 이번엔 '아트 팝' 음악 장르 개척
(조선닷컴 2010.4.13)

김효근 이화여대 교수 "새벽까지 곡 만들기도"

"우리나라의 예술가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가곡과 대중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어서 '아트팝'(예술성 높은 대중음악)이란 장르를 만들어 봤어요. 음반도 냈고요." 이화여대 김효근(50)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내 영혼 바람 되어'라는 음반을 발표했다. 작사·작곡 모두 김 교수 작품이다. 노래는 뮤지컬 가수 양준모씨가 불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新) 지식인'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자 국내에 '지식경영' 개념을 도입한 학자다. 그가 이번에는 음반을 낸 것이다.

가곡은 그에게 그냥 취미가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이던 1981년 제1회 'MBC 대학 가곡제'에서 그가 만든 곡 '눈'이 대상을 받았다. '눈'은 이후 중·고교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해졌다. 그 뒤 '이젠 전공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 1992년 귀국해 교수로 일하다가 3년 뒤부터 틈틈이 곡을 만들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지 말자'고 눈을 질끈 감아도 생각나잖아요. 제겐 음악이 그랬어요. 중1 때 학교 오디오실에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들었던 게 첫 감동이었죠. 음악에 온전히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음악 전공을 반대한 부모 때문에 경제학과를 택했지만, 그는 대학 진학 후에도 주말마다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고 주 중에는 록밴드 활동을 했다. 지금도 '필(feel)'이 오면 새벽까지 곡을 만든다고 한다.

그의 음반 속지 첫 장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쓰여 있다. 아내가 스무 살이던 시절 '나와 결혼해주면 음반을 만들어 헌정하겠다'고 했던 약속 때문이란다. "사랑의 감성이 깔린 음악들입니다. 요즘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제 음악이 위안이 됐으면 해요."



▶ 김효근 CD "내 영혼 바람되어"
자켓 표지 사진파일



KC코트렐
김효근 사외이사님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김남인 기자 kni@chosun.com